

실속 재테크

어린이 금융상품

“용돈관리계좌는 재테크의 첫 걸음”

어린이적금 이자 4%대 쏠쏠...스스로 관리하게 해야



초저금리 시대를 살아가야 할 자녀들에게 영아·수확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재테크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다. 추석 때 친척들로부터 용돈을 받은 자녀들에게 어린이 통장으로 직접 용돈관리를 할 수 있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

금에도 복리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광주은행은 29일부터 만 18세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한 'KJB아 이사랑월복리적금'을 판매한다. 원금과 이자가 매월 새로운 원금으로 되는 '월복리'로 운영되는 적금으로 가입기간은 1~3년 이내이며 기본 금리는 3.3~3.7%다. 자유 적립 방식으로 1만원 이상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총 한도는 1500만원 까지다.

CMA 등 용돈관리계좌를 만드는 것도 재테크의 첫걸음으로 권할만하다. 하루만 맡겨도 일반 수시입출금식 상품보다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장기투자라면 적립식펀드=에·적금 금리가 너무 낮다고 생각되면 펀드 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장기투자를 할 경우 적금보다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단 어린이 펀드의 경우 최근 설정된 것보다 어느정도 운영성과가 검증된것을 고르는게 좋다. 설정액이 큰 펀드를 고르는게 다소 유리하다.

원으로 가장 많고, '미래에셋 우리아이 세계로 적립식 증권투자신탁 K1'이 6043억원으로 뒤를 잇는다. 1년 수익률은 각각 49.21%, 49.44%다. 현대증권은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저평가 가치종목을 주로 편입, 중장기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 '키자니아 어린이 증권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운용회사인 현대자산운용과 함께 각각 수익금 15%를 적립해 경제역사캡, 해외 연수 등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핸드백에 묻어있는 클래식한 가을

2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잡화매장에서 올 가을 유행할 핸드백을 대거 선보였다. 올 가을에는 클래식한 디자인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대형마트들 내달부터

비닐쇼핑백 판매 중단

내달부터 주요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이 판매되지 않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 129개점과 홈플러스 118개점, 롯데마트 86개점을 비롯한 전국 5개 대형마트 350여 개 점포에서 내달 1일부터 비닐 쇼핑백 판매가 중단된다. 환경부가 지난달 25일 5개 대형마트와 맺은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점포'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5개 대형마트에서 연간 1억5000만장 이상이던 비닐쇼핑백 사용량이 줄어 연간 6390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75억원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마트들은 소비자 불편을 줄여라 장바구니 증정, 쇼핑백을 쓰레기 봉투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이마트는 내달 1~2일 장바구니 11만4000개를 고객들에게 무료로 증정하고, 내달 1일부터 보증금 3000원에 장바구니를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기존 72개점에서 전점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

은행 연체율 급등...15개월來 최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주택 시장의 침체 국면이 이어지면서 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이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은행권의 원화 대출 연체율(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은 1.50%로 전월말보다 0.23%포인트 올라갔다. 이는 작년 5월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6월말(0.99%)과 비교해 두 달 사이에 연체율이 0.51%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연체율은 기업과 가계 구분없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2.07%로 전월말보다 0.32%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2.23%로 전월말보다 0.36%포인트 올랐고, 대기업 연체율

은 1.29%로 2006년 11월(1.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6월말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급감한 관제자는 "대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일시적인 연체가 증가했다"며 "건설업·부동산업과 조선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비교적 크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78%로 직전 최고치였던 작년 5월(0.78%) 수준까지 올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64%로 전월보다 0.11%포인트 오르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작년 2월 0.69% 이래 최고치다. /연합뉴스

주택담보 연체율도 2분기 연속 상승

6월말 현재 0.44%

금융권의 주택담보 연체율이 2분기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부위원회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담보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올 2분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3%로 집계됐다.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조사되는 분기별 주택담보연

체율은 지난해 4분기 0.73%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 0.81%로 반등했다. 금융권 중에서도 은행의 주택담보 연체율은 6월말 현재 0.44%로 조사됐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0.36%까지 떨어졌다가 4월 0.40%, 5월 0.42% 등으로 증가 추세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함께 높아졌다. /연합뉴스

광주 현금영수증 발급처 늘었다

민간소비지출 55%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 시행후 발급액 45%↑...병의원·예식장 順

광주국세청 4~8월 13건 1500만원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 후 광주지역에서는 병의원, 예식장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증가율이 높은 반면 변호사 등 전문직, 학원의 증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올 4~8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신고된 사례 13건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위반사업자에게 과태료 1500만원(13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기간 중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해 신고된 건수는 전문직 2건, 병의원 8건을 비롯해 모두 6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13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뒤 3개월간(4~6월) 해당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9%(652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77% 늘어났으며 예식장 64%, 장례식장 50%로 증가율이 높았다. 하지만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 6.5%, 학원은 0.1% 증가에 그쳤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병원, 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등 탈세를 막기 위해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7월부터는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에 추가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어긴 업소는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영수증 미발급액의 20%(건당 최고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이 기간에 전국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해 신고된 건수는 전문직 28건, 병의원 78건을 비롯해 모두 5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75건에 대해선 포상금이 지급됐다.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8053억원) 증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올해 상반기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54.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소비지출 301조7천억원 중 신용카드 결제액(현금서비스·카드론 및 기업구매카드 실적 제외)은 165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4.9%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협회는 "카드사들이 신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카드결제 비중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방세, 전기세와 같은 공과금 서비스 등으로 카드결제 범위가 확대된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혔다. /연합뉴스

10월 23일 단 하루! 무안에서 출발하는 참좋은 푸켓여행. 광주대리점 1588-7557, 062)515-7600. 상품: 실속 푸켓 3박4일 ₩499,000, 품격 푸켓 3박4일 ₩649,000, 초특급 푸켓 3박4일 ₩1,110,000, 푸켓 골프 3박4일 ₩1,070,000(연급) ₩1,110,000(복급).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주관:참좋은여행(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21-1 MIES빌딩 11층 TEL:02)2188-4000 / FAX:02)599-3111 ·문화관광부 등록 일반여행업 685호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 ·교통편:항공 및 전차/버스/전지역 ·추가 경비 없음(단, 개인적인 팁, 선택관광 별도) ·공동여행조건:여행경비 1인기준(공방세 포함/일 일정 1급/ 식사포함, 최소 출발인원:2명-, 영업보증보험 5억가입, 여행자보험